최태원 "사회문제 해결에 보상 필요… 참여 이끌어야"

세계행정학회 서울대회서 기조연설
10여년간 진행해온 'SPC 실험' 소개
사회적가치 측정·보상으로 도입 확대
AI 활용 방안 제시… 공동연구 요청도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이 18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2026 세계행정학회(IIAS) 서울대회' 개회식에서 기조연설을 하고 있다. /뉴시스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는 일이 수익을 내는 사업이 되면 자본이 따라 들어옵니다."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은 18일 서울 중구 대한상의에서 열린 '2026 세계행정학회(IIAS) 서울대회'에서 "사회문제 해결에 더 많은 사람이 참여할 수 있는 인센티브가 필요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정부 재정과 기부만으로는 복잡해지는 사회문제와 늘어나는 대응 비용을 감당하기 어려운 만큼, 경제적 보상을 통해 민간의 참여와 투자를 이끌어내야 한다는 취지다.

최 회장은 구체적인 사례로 SK가 10여년간 진행해 온 사회성과인센티브(SPC) 실험을 소개했다. 사회적 기업이 창출한 가치를 금액으로 환산해 현금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모델이다.

실험의 핵심은 '측정'과 '보상'이었다. 초기에는 회계팀이 사회적 기업을 직접 방문해 사회적 가치 측정 방법을 마련했다. 창출한 가치의 약 4분의 1을 인센티브로 지급한 경우와 지급하지 않은 경우를 비교해 참여자의 행동과 성과 차이를 살폈다.

대한상의가 제시한 지난 10년간 SPC 참여 기업 468곳의 분석에서는 인센티브를 받은 기업의 사회적 가치 창출 규모가 미지급 기업보다 평균 약 3배 높았다. 평균 매출도 34% 높게 나타났다. 고용·생산 유발효과는 기존 보조금 방식의 1.5~2배 수준으로 집계됐다.

최 회장은 "기존 정부 지원은 보조금 형태로 먼저 지급했지만, 저희는 성과를 사후에 측정해 인센티브를 줄 수 있다"며 "사회적 영역에도 자본주의적 인센티브를 도입하면 같은 돈과 같은 시간으로 훨씬 더 많은 사회적 가치를 만들어낼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사회문제 해결이 수익을 내는 사업으로 자리 잡으면 투자자금이 유입돼 혁신도 빨라질 수 있다고 전망했다.

민간의 성과 보상 실험은 공공 영역으로도 확대되고 있다. 대한상의 자료에 따르면 서울 등 지방정부가 사회적 성과 기반 보상을 도입했고 제주와 전북은 관련 조례를 제정했다. 고용노동부는 올해부터 전국 단위로 적용한다. 행정안전부도 내년 성과기반보상 체계를 접목할 예정이다.

최 회장은 성과 보상체계의 확산을 위해 측정·평가 비용을 줄일 수단으로 인공지능(AI)을 제시했다. 지원 대상과 적절한 서비스를 파악하는 데 드는 행정·거래 비용을 낮추고 투입 자원에 따른 사회적 가치도 예측해 사업 선택과 자원 배분에 활용하는 방식이다.

이를 지속 가능한 체계로 정착시키기 위해 정부·기업·시민사회·학계가 역할과 부담을 나눠야 한다고 당부했다. 세계행정학계에는 국가별 적용 방안과 효과를 공동으로 연구·검증해 달라고 요청했다. 자신이 이사장을 맡은 사회적가치연구원에 축적된 데이터를 활용한 협력도 제안했다. 최 회장은 "무엇이 효과가 있고 어떻게 하면 더 검증할 수 있을지 공동으로 연구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원관희기자 wkh@metroseoul.co.kr



토요타자동차, 19.5톤 '김장나눔 행사'

한국토요타자동차는 서울시사회복지협의회와 '2026 토요타·렉서스 사랑의 김장나눔' 행사를 진행했다. 지난 17일 전국 11개 복지기관에서 한국토요타자동차와 토요타파이낸셜서비스코리아, 전국 토요타·렉서스 공식 딜러사 임직원 등 350여 명이 총 19.5톤의 김장김치를 담가 이웃에게 전달했다. /한국토요타자동차



소진공, 신한카드·KCB와 AI 지원 강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신한카드, 코리아크레딧뷰로(KCB)와 함께 소상공인을 위한 AI 서비스를 강화한다.

소진공은 지난 17일 서울 중구 신한카드 본사에서 '소상공인365 상권 데이터'를 AI 서비스에 활용하기 위해 신한카드·KCB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현대차, 어촌 맞춤형 모빌리티 개발

ST1차량 개발… 주민 편의개선 나서
이동형 매장·해녀 온열쉼터 등 검토

현대자동차가 어촌 수요에 맞춘 차량과 생활서비스를 개발해 주민들의 이동 편의와 생활 여건 개선에 나선다.

현대차는 한국어촌어항공단과 'Co:어촌' 프로젝트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18일 밝혔다. 협약식은 지난 17일 서울 중구 컨퍼런스하우스 달개비에서 열렸다.

이번 프로젝트는 인구 감소와 고령화, 생활서비스 부족 등 어촌 현안을 해결하기 위한 민관 협력사업이다. 양 기관은 지역별 이동·편의·안전 관련 수요를 발굴하고 이에 맞는 모빌리티 서비스를 공동 기획해 현장에서 실증한다.

한국어촌어항공단은 참여 지역 발굴과 실증 지원을 맡는다. 현대차는 지역 수요에 맞춰 ST1 차량을 개발하고 운영자 교육과 현장 유지·보수를 지원한다. ST1은 운전실과 차량 뼈대를 갖춘 기본 구조에 용도별 시설을 얹어 활용할 수 있는 비즈니스 플랫폼 차량이다. 현대차는 ST1을 물류용 차량뿐 아니라 경찰 작전차와 응급 구조차, 캠핑카 등 다양한 용도로 개발할 수 있도록 설계했다.


(왼쪽부터) 한국어촌어항공단 홍종욱 이사장과 현대자동차 국내판매사업부장 염재섭 상무가 업무협약 체결 후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현대자동차

서비스 모델로는 간편식과 숙박 편의용품을 판매하는 이동형 팝업스토어, 조업 후 휴식과 건강관리를 돕는 해녀 케어 온열쉼터 등을 검토하고 있다. 어촌 관광을 위한 차박 서비스와 마을 투어버스도 후보에 포함됐다.

대상 지역과 사업이 정해지면 맞춤형 차량을 투입해 시범 운영한다. 실제 이용자와 운영 주체가 참여해 이용 편의성과 지역 현안 개선 효과, 지속 운영 가능성을 검증한다. /이승혁 기자 sh95@

LG전자, '인간공학디자인상' 최고상 수상

'시스템 아이어닝' 최고상 등 4관왕

LG전자의 올인원 의류 관리기기 'LG 시스템 아이어닝'이 대한인간공학회가 주관하는 인간공학디자인상에서 최고상을 받았다.

LG전자는 '2026 인간공학디자인상'에서 시스템 아이어닝이 최고상(Grand Prix)을 수상했다고 18일 밝혔다. 대한인간공학회는 제품의 사용 편의성과 효율성, 안전성, 감성 품질 등을 종합 평가해 수상작을 선정한다.

LG 시스템 아이어닝은 스팀 다리미와 핸디 스티머, 스타일링 보드를 결합한 제품이다. 한국인의 인체 치수 데이터를 기반으로 사용자의 키와 팔꿈치 높이에 맞춰 다림판 높이를 전동으로 10단계 조절할 수 있다. 면과 울, 레이온 등 옷감 종류에 따라 스팀 온도를 자동으로 설정하는 7개 코스도 지원한다.


(왼쪽부터)LG AI 오브제컬렉션 식기세척기(최고 제품상), LG 시스템 아이어닝(최고상) ,LG 이페이퍼 디스플레이(최고 혁신상). /LG전자

LG전자는 이번 시상식에서 최고상을 포함해 총 4개 제품이 수상하며 지난 2024년부터 3년 연속 기업 중 최다 수상 기록을 세웠다. /차현정 기자 hyeon@



iM금융, 제주 어르신 금융교육 등 지원

iM금융그룹 iM사회공헌재단은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소재 제주시니어클럽을 방문하고 '지역 어르신 대상 금융교육 및 일자리 창출사업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신용필 iM금융지주 그룹가치경영총괄 전무(왼쪽 두번째) 및 관계자들이 협약식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iM금융그룹

'장애경제인대회' 개최… 모범·유공자 포상

중기부, 모범표창 등 42점 포상 수여

중소벤처기업부가 서울 여의도 FKI타워 그랜드볼룸에서 '제21회 전국장애경제인대회'를 열고 장애인기업 발전에 기여한 모범 장애경제인과 유공자를 포상했다.

18일 중기부에 따르면 전국장애경제인대회는 장애인기업의 성과를 알리고 장애경제인의 자긍심을 높이기 위해 2006년부터 개최해 왔다.

올해 주제는 '도전하는 장애경제인, 성장하는 대한민국'이다.

이날 행사에선 국가경제 발전과 국민생활 향상에 기여한 모범 장애경제인과 장애인 창업경진대회 수상자, 관계 유공자 등에게 중기부 장관 표창 23점, 상장 3점, 지식재산처장 표창 5점, 장애인기업 종합지원센터 이사장 표창 3점, 상장 8점 등 총 42점의 포상이 수여됐다.

모범 장애경제인 표창을 받은 도서출판 점자 김동복 대표는 시각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읽을 수 있는 점자·묵자 혼용 도서와 큰 글자 도서 등 배리어프리 도서를 출판·보급해 왔다. /김승호 기자 bada@



SK인텔릭스, 안전관리 국무총리 표창

SK인텔릭스가 18일 '2026 제품안전의 날'을 맞아 국무총리 표창을 수상했다. SK인텔릭스는 AI 웰니스 로봇 '나무엑스(NAMUHX) A1'의 설계·개발부터 품질 검증, 운영 등 제품 전 생애주기에 걸친 선제적 안전 관리 체계를 구축한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SK인텔릭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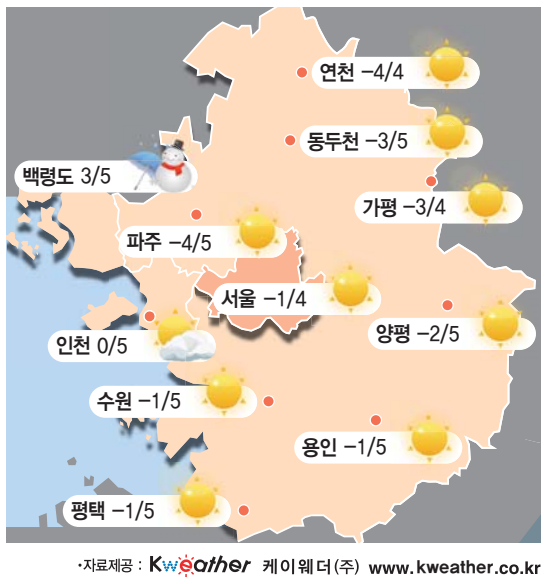
오늘의 날씨

해뜸 / 07:16 | 해짐 / 17:19

11월 19일 (木)
음력 : 10월 11일

수도권 날씨
-1 ~ 4℃

운동 지수	
빨래 지수	
세차 지수	
외출 지수	



·자료제공 : Kweather 케이웨더(주) www.kweather.co.kr

인 사 ◆EBS◇부서장△감사실장 송춘실

◆지식재산처◇과장급 승진△지식재산데이터관리과장 이상윤△지식재산등록과장 강성헌△화학식품상표심사과장 박종필△식품생물자원심사과장 김철호△바이오의약심사팀장 송현정△특허심판원 심판장 이창용

부 음 ▲안종남씨 별세, 최남순씨 남편상, 안홍석(신안자동차정비 검사과장)·재홍(보성고 교사)·서진(NBS투데이 팀장)씨 부친상, 오승희(농협 곡성군지부 지점장)·양선아(한겨레 문화스포츠부 텍스트팀장)씨 시부상 = 17일 오후 7시40분, 광주남문장례식장, 발인 19일 오전 10시30분, 062-675-5000.

애경산업

글로벌 ESG 평가 '실버'

애경산업이 국내에 이어 글로벌 ESG(환경·사회·지배구조) 평가에서도 첫 진입 만에 상위권 성적을 거둬 글로벌 뷰티 시장 내 공급망 경쟁력과 대외 신뢰도를 높였다. 애경산업은 글로벌 지속가능경영 평가기관 에코바디스의 ESG 평가에서 '실버' 메달을 획득했다고 18일 밝혔다.

에코바디스는 지난 2007년 프랑스에서 설립된 국제 ESG 평가기관이다. 올해 처음 에코바디스 평가에 참여한 애경산업은 전체 평가 대상 기업 중 상위 15% 이내에 해당하는 실버 등급을 받았다.

/이청하 기자 mlee236@